

무용수의 무용표현력에 관한 국내 학술분야 연구동향

박근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시간강사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cademic Fields on Dance Expression of Dancers

Geun-tae Park

Departmen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무용표현력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 논문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KISS)와 DBpia에 수록된 등재(후보)학술지 무용표현력 관련 논문 총 36편을 선정, 연도별 학술지,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편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방법 중 상관연구가 제일 많이 발견되었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무용정서표현성, 신체표현능력, 무용표현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은 무용전공대학생, 무용프로그램, 무용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많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양적연구에만 의존하는 한계적 연구경향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무용수, 무용표현력,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무용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journals about dance expression ability. The thesis was selected from 36 articles selected from Korean Academic Information (KISS) provided by KERIS from 2001 to December, 2017 and articles related to dance expressions included in DBpia,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hemes. First, the research trends of the academic journals by year were on average 3 from 2004 to 2017. Second, the research method is mostly related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ird, research theme trends were dance expressiveness, body expression ability, and dance expressiveness. Fourth, the research subjects were dance students major, dance program, dance expression in ord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research techniques and overcome the researches to overcome the research tendency based on questionnaire scales or statistical results.

Key Words : Dancers, Dance Expression, Domestic Journals, Research Trends, Dance Studies

1. 서론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리나 김나은은 탁월한 신체라인과 테크닉 및 우수한 무용표현력을 인정받아 2015년 한국발레협회 프리아 발레리나 상을 수상했다[1]. 또한

현대무용수 이주미 역시 섬세한 근육에서 표현되는 슬픔을 잘 나타내었다고 평가받아 2016년 프랑스 파리콩쿨에서 컨템포러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2]. 이렇듯 무용표현력은 전문무용수의 자질이나 또는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무용수뿐만 아니라 배

*Corresponding Author : Geun-tae Park(lalala0817@gmail.com)

Received September 29,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5,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우에게도 관심사가 되었다. 얼마 전 ‘무한도전’ 멤버들은 자신의 신체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무용가 김철진을 특별교사로 초빙하여 무용표현력을 배웠고[3], ‘배우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연기자들은 발레리나 김주원으로부터 신체를 이용한 무용표현력을 배우는 바 있다[4]. 이렇듯 무용표현력은 전문무용수 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관심 분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용표현력은 무용수행의 궁극적 목적인 미적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능력이다[5]. 무용의 목적이 표현이라는 사실은 무용학자들이 언급한 무용의 정의 즉, “무용은 인간 내부의 미적인 정서를 육체를 빌어 율동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능력은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표현하는 사람의 내·외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난다. 내·외적 조건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격 조건과 체력, 예술적 감수성과 심미적 표현력을 말하며[7], 더불어 지속적인 연습과 정을 통해 보다 확장된 무용표현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무용표현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혜원, 이용현, 박승하[5]는 무용표현력을 동작표현기술, 외적표출능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열정인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김정은[8]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룬 자크 라캉(J. Lacan, 1901-1981)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작품 속 무용창작표현력을 연구하였으며, 김태훈, 정희정[9]과 신은경[10], 그리고 장정윤[11]은 상상력을 통한 무용표현력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복희[12]는 신체의 상징성과 상징물에 의한 무용표현력을 연구하였으며, 파조간영자[13]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 코네리테라 민족무용을 통해 손의 움직임에 집중한 무용표현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청자, 김형남, 박은주[14], 그리고 홍선미[15]는 움직임의 표현성과 그 기능의 확장에 초점을 둔 신체훈련법(바르테니에프 펜더멘탈)과 배우즉흥훈련법(Etude)을 접목시켜 전문무용수의 무용표현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훈련의 확장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용표현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독자적 학문의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혜원 등[5] 역시 선행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무용수행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표현력 자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무용표현력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용표현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과 질적 측면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현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무용수의 무용표현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전문무용수의 무용표현력 역량과 작품의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무용표현력에 대한 동향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무용표현력 관련 견고한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일은 무용학 발전에 핵심적 요소이며, 무용표현력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제시하고 학문의 결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용표현력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무용표현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무용예술 분야의 무용표현 관련 연구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무용표현과 관련된 논문의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어떠한가?
- 둘째, 무용표현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 셋째, 무용표현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넷째, 무용표현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대상 동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자료선정 기준

첫째, 연구대상으로는 ‘무용표현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무용표현력과 관련된 무용분야의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한 전집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적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학위논문, 단행본, 학술발표, 보고서 등은 제외하였다.

둘째, 논문의 수집은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학술데이터베이스)와 DBpia에서 ‘무용표현력’이 논문의 제목 또는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산출하도록 검색하였다. 제일 먼저 논문의 제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초록 또는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 선정된 주제어와의 관련성이 미미하거나 관련이 없는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6편의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분석대상 논문은 2001년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학술연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다[16].

2.2 분석방법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학술지 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방법의 경우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유형에 따라 연구방법을 분류하였다. 박준태, 박기용[17]과 Thomas & Nelson[18]이 제시한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선정한 항목은 양적연구(상관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도구개발연구), 질적연구(근거이론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비교분석연구, 개념의미 분석연구)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서수진[19]과 손민[20]이 제시한 분류방법을 참고, 연구의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 동향 또한 서수진[19]과 손민[20]이 제시한 분류방법을 참고, 연구의 대상 및 참여자 별로 분석하였다.

2.3 신뢰도

신뢰도는 연구자 1인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무용학 박사 1인이 전체 논문 대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논문의 분석자간 신뢰도는 박준태, 박기용[17]이 사용한 신뢰도 산출공식'(일치된 분석 항목 수/ 일치된 분석 항목 수 + 불일치된 분석 항목 수) × 100'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약 98%의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1. Journal trends by year

Journal \ yea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
The Korean Research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1			1							2 (5.6)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1		1			1		1	2		6 (16.7)
Resach of Dance Education										1			1	2	1			5 (13.9)
The Journal of Korean Dance																	2	2 (5.6)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						1 (2.8)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1	1				2 (5.6)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 Education					1			1			1							3 (8.3)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1						1 (2.8)
The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1		1 (2.8)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							1			1	3 (8.3)
Dance Research Journal of Korea				1				1		2		1			1		1	7 (19.4)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1 (2.8)
Korea Sports Research					1													1 (2.8)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				1 (2.8)
Total	0	0	0	1	2	0	1	4	0	4	2	3	3	6	3	3	4	36 (100.2)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연도별 학술지 동향

연도별 학술지 동향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DBpia)에 게재되어 있는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무용표현력 관련 논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표된 무용표현력 관련 논문은 총 36편이 탐색되었고, 이 논문들은 14개의 국내 학술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학술지 전체 논문 중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편(19.4%), 한국무용과학회지 6편(16.7%), 한국무용교육학회지 5편(1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11개 국내 학술지에서 3편미만의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가 게재되었다. 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무용표현력과 관련되어 게재된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6년 또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고, 2004년 대학무용학회논문집을 시작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현실적 이유로 인해 무용표현력이 무용인들에게 중요시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첫째, 1990년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책과 2000년대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 확대 및 향유자 중심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정책[21]에 따른 문화예술 공공지원인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문화재단 중심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결과로 이어진 국제적 규모의 활발한 축제문화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가 통합되어 2002년에 서울공연예술제(SPAP)로, 국제현대무용제는 2002년 MODAFE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현대무용분야의 세계적 공연예술축제로 성장하였다. 또한 1998년에 설립, 2000년대부터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축제로 성장한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2]가 그것이다. 국제적 무용축제는 양질의 해외무용 소개를 통해 국내 무용인들의 창작 자극과 창작력 향상을 유발하여 무용예술의 발전[23]을 마련하였고, 무용가의 예술에 대한 높아진 인식은 창작영역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실천적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24]. 따라서 무용표현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무용의

근본적 목적이 되는 표현 자체 혹은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로써, 김민지[25]는 심리적 변인 관련 연구로만 확대되어왔을 뿐, 정서 표출의 의미로써 직접적인 표현성에 대한 개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여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별 동향의 지향점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적으로인 과 사회·심리적 요인을 밝히기 위한 양적 연구의 수행과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관련변인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병행을 통해 다차원적 개념의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로 발전해야 한다. 즉, 현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물의 게재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무용표현력 연구의 지속성과 함께 활성화되는 무용표현력 관한 연구의 확장성을 기대한다.

3.2 연구방법 동향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방법 동향은 Table 2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적 연구방법 24편(70%), 질적 연구방법 6편(15%), 문헌연구방법 6편(15%)으로 탐색되었다. 양적연구가 객관적, 통계적,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주관적, 해석, 발견에 중점을 두는 연구 접근 방법이며[26], 문헌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 혹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단순히 리뷰하거나 특징의 개념적·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여 이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한다[27]. 전체 논문 중 양적연구방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질적 연구방법과 문헌연구방법에 비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 패러다임의 특성상 무용이 가지고 있는 신체경험 관련 내용들이 수량화 또는 계량화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간과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무용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방법의 결과는 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이며, 이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 설계와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드러낸다.

무용표현력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며, 이를 증진시켜 무용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신체를 통한 정서적, 정신적 인식의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질과 양의 대비적 관점이 아닌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함께 어울어짐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28]. 즉, 현재 양적연구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무용표현력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현상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이론적으로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연구방법, 편향적 연구동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기법의 확충이 필요하다. 단순히 양적인 분석 보다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질적연구, 실험연구, 통합연구 방법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29], 심리나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심층면담과 직접적인 연구자의 참여, 관찰일지, VR녹화 방법 등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무용표현력의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또는 질적·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Table 2. Research method Trend

Classification	N	%
Quantitative research	24	66
Qualitative research	6	17
Literature study	6	17
Total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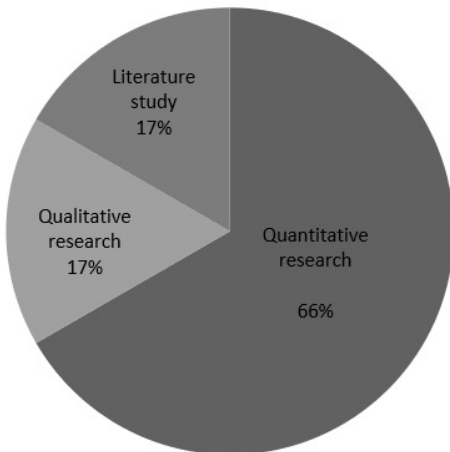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ethod Trend

3.2.1 양적 연구방법 동향

양적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양적연구 24편 중 주로 둘 이상의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상관연구가 17편(70%),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3편(13%),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 하는 조사연구가 3편(13%)이 있으며, 특정도구개발연구가 1편(4%)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또는 인간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무용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 연구변인을 수량화하여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는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은 수학적, 통계적 기법이 적용되며[30], 이 통계적 기법은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31]. 이러한 결과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들 대부분이 설문에 의거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상관연구에 많은 비중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무용표현력이라고 하는 변수의 연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여러 변수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상관연구의 장점 때문이다.

무용수 자신의 주제적 개성의 표출인 무용표현력은 무용수의 정신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무용수행중 고난도의 기술이 발휘되거나, 강한 체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32]. 따라서 연구 상황의 작위성 및 비현실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진 실험연구는 연구의 빈도수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용표현력이라는 주제연구 자체의 결과가 많이 발견되지 않아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추후 주제연구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면 연구결과가 증가할 것이라 여겨진다.

Table 3.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Classification	N	%
Correlation study	17	70
Experimental research	3	13
Research study	3	13
Development of specific tool	1	4
Total	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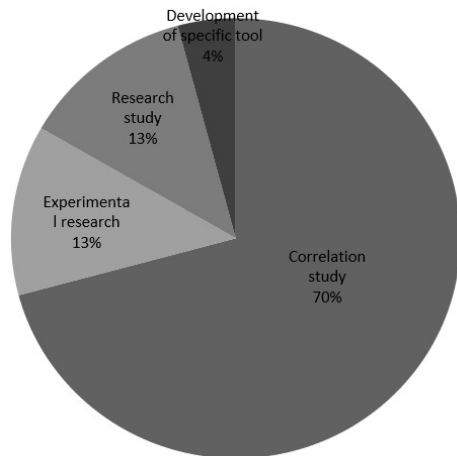


Fig. 2.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Table 4.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Classification	N	%
Grounded theory research	5	83
Case study	1	17
Total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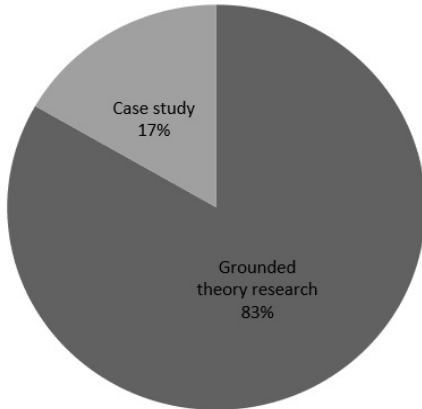


Fig. 3.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3.2.2 질적 연구방법 동향

질적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4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질적 연구방법 연구물 6편 중 전개되는 관찰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하려는 귀납적 접근연구 방법이 근거이론연구가 5편(83%)을 차지했고,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연구가 1편(17%)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요인 탐색 연구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 연구방법 분석 동향을 살펴보면, 무용표현력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 근거이론연구가 5편이며, 무용표현력이 사용되어진 연구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어 총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연구가 1편으로 선행자료로 제공되어 있지만 질적 연구방법은 전체 연구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중길[33]은 무용분야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용 그 자체가 다차원적(예술적, 학문적 등)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용의 가치들은 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무용

학 연구의 질적 연구 적합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렇듯 광범위한 무용표현력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앞서 말한 심층면담과 직접적인 연구자의 참여, 관찰일지, VR 녹화 방법 등 연구의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able 5.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Classification	N	%
comparative analysis	1	17
conceptual semantic analysis	5	83
Total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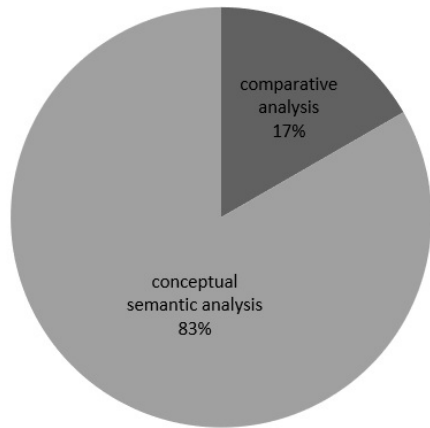


Fig. 4.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alysis trend

3.2.3 문헌연구 방법 동향

문헌 연구방법 분석 동향 결과는 Table 5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문헌 연구 6편 중 공통적·일반적 성질을 뽑아내서 이루어진 표상인 개념의 뜻을 알아보는 개념의미 분석연구가 5편(83%)을 차지했고, 현상과 특징들을 비교하기 위해 질적 또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비교분석연구가 1편(17%)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역사철학 분석연구나 제도정책 분석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인주[34]는 문헌연구 방법 분석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무용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이론 및 지식의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표현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양적평창이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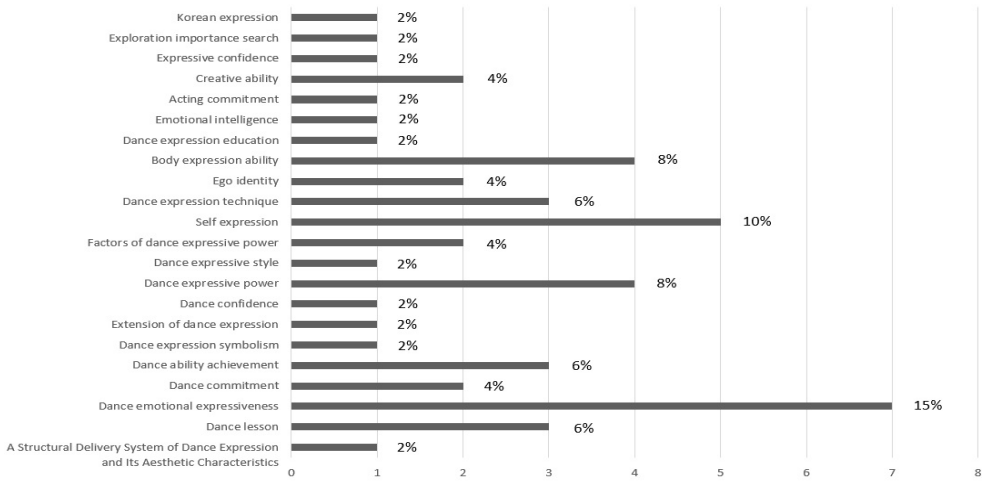


Fig. 5. Research topic trend

지 못하고 있어 그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가 1편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향후 무용표현력에 관한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연구의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연구주제 동향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무용정서표현성 1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로 자기표현 10%, 신체표현능력 8%, 무용표현력 8%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용표현기법, 무용능력성취, 무용수업 등이 각각 6%, 창작능력, 자아정체성 무용표현력의 구성요인, 무용몰입이 4%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주제들은 2%의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무용표현력의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려는 성향을 뜻하는 무용정서표현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무용정서표현성이 무용표현력에서 언급한 정의 중의 무용수 내면의 것들을 자기표현, 자신의 정서 전달, 관객과의 소통 등을 신체동작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35]과 부합되어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흥미를 일으켰으리라 사료된다. 그 외에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자기표현과 몸을 소재로 개인의 느낌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의 신체표현능력, 무용 학습으로 인해 얻게 되는 무용능력성취 등 무용표현력의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Table 6. Research topic trend

Classification	N
A Structural Delivery System of Dance Expression and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1
Dance lesson	3
Dance emotional expressiveness	7
Dance commitment	2
Dance ability achievement	3
Dance expression symbolism	1
Extension of dance expression	1
Dance confidence	1
Dance expressive power	4
Dance expressive style	1
Factors of dance expressive power	2
Self expression	5
Dance expression technique	3
Ego identity	2
Body expression ability	4
Dance expression education	1
Emotional intelligence	1
Acting commitment	1
Creative ability	2
Expressive confidence	1
Exploration importance search	1
Korean expression	1
Total	48

2004년 이전의 연구 주제들은 경험과 해석 등 한정된 주제들이 연구 되어있는 반면 이후로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로 연구되어[28] 전반적인 연구주제의 다양성은 확보되었으나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 다른 주제들의 빈도수는 분석대상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무용표현력이라는 연구주제의 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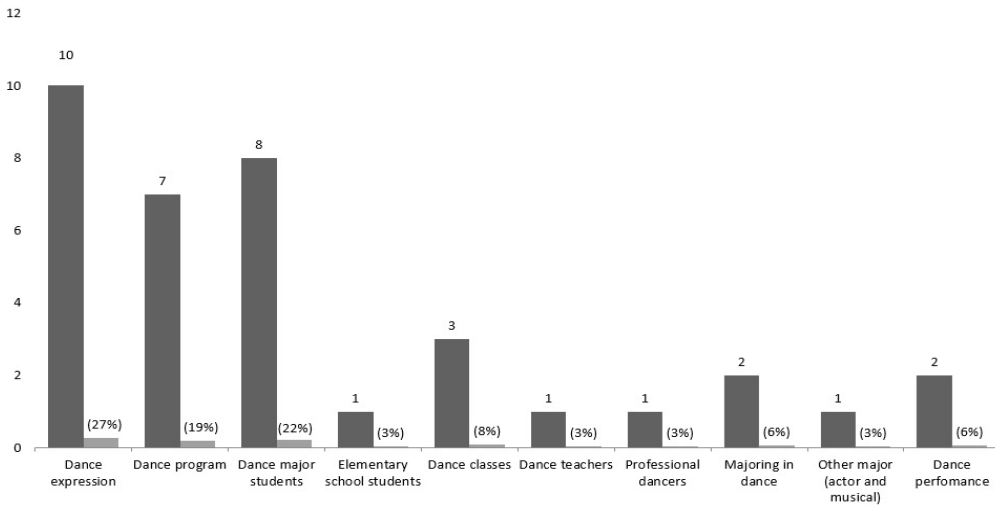


Fig. 6. Trends by subject

3.4 연구대상 동향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대상은 무용표현 27%, 무용전공대학생 22%, 그리고 무용프로그램이 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무용수업 8%, 무용전공자 6% 무용작품 6% 등으로 연구되어졌다. 이는 무용표현력의 적용 대상과 대상에 대한 무용표현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써 학문적 반영에 대한 관심이 치중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전체 연구대상 중 무용표현[36]과 무용전공대학생[14, 35], 무용프로그램[8, 14] 등이 다른 연구대상과 큰 편차를 두게 된 것은 무용표현력의 적용대상과 대상에 대한 무용표현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주제에 따른 교육과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학문적 반영에 대한 관심이 치중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표현하는 사람의 내외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용표현력을 실행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무용교사나 또는 무용에 입문하는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구대상의 분석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용표현력이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무용표현력은 단지 무용수뿐만 아니라 무용수행에 관련된 모든 대상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36], 이에 따라 대상의 편중되지 않는 대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7. Trends by subject

Classification	N
Dance expression	10
Dance program	7
Dance major students	8
Elementary school students	1
Dance classes	3
Dance teachers	1
Professional dancers	1
Majoring in dance	2
Other major (actor and musical)	1
Dance performance	2
Total	36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수의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무용표현력 관한 국내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KISS)와 DBpia에 수록된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36편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라 연도별 학술지,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학술지 동향은 14개의 국내 학술지에 골고

루 분포되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06년에는 연구된 바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평균 3편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학술지 전체 논문 중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편(19.4%), 한국무용과학회지 6편(16.7%), 한국무용교육학회지 5편(13.9%)이 높은 게재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학회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는 추세로 보아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는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이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는 무용예술분야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의 편향적인 연구방법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현상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이론적 기반을 확고하기 위한 연구방법,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동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기법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 중 상관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질적 연구방법과 문헌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며, 편향적인 연구물로 인해 비교 분석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들 대부분이 설문에 의거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연구에 많은 비중이 나타난 것은 연구의 타당성과 통계적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가치와 무용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광범위한 무용표현력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연구의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주제 동향은 무용정서표현성, 신체표현능력, 무용표현력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용표현력이라는 연구주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2004년 이후로 연구주제의 다양성은 확보되었으나 빈도수는 분석대상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무용표현력이라는 연구주제의 편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주제의 발췌는 무용표현력 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주제 영역이 개발되어진다면 무용표현력에 관련된 학문적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연구대상은 전체 논문 중 무용전공대학생, 무용 프로그램, 무용표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무용표현력의 적용 대상과 대상에 대한 무용표현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무용표현력 교육

과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써 학문적 반영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된다. 무용표현력은 무용수행에 관련된 모든 대상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대상은 편중되지 않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무용표현력을 실행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무용교사나 무용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에 관한 연구대상이 미비하다는 것은 무용표현력의 연구대상에 대한 치우침으로 설명될 수 있기에 다양한 연령별 및 주제의 연구가 시급하다 판단되며, 다차원적 관점에서 개발된 무용표현력은 무용수행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대상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무용표현력 관련 논문은 각종 학술지에서 다각도로 발표되는 연구의 지속성을 보아 연구는 계속 이어져 나아갈 것으로 보이나, 설문 척도나 통계적인 결과에 의거한 연구 경향의 극복을 위한 연구 기법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의 존엄을 위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독자적인 연구적 자립을 위해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지속되어 학문적 자립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편중된 연구대상의 결과를 딛고 무용표현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무용표현력 관련 연구에 대하여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연구영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는 무용표현력의 중요성과 가치, 무용예술의 대중화와 확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된다.

REFERENCES

- [1] D. R. Jeong. (2015. 12. 15). Universal Ballet Dancer Kim Na-eun receives 'Prima Ballerina Award'. *ajunews*, <http://www.ajunews.com/view/20151215083611122>
- [2] J. Y. Ann. (2016. 2. 25). Lee Joo-mi won the Paris Dance Competition. *munhwa*,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2501032912069001>
- [3] H. Y. Lee. (2017. 6. 8). Infinite Challenge Kim seol Jin appears. *sportsq*, https://www.sportsq.co.kr:454/news/articleView.html?id_xno=241439
- [4] Y. J. Kim. (2016. 2. 18). Actor School ballerina Kim Ju-won appears. *asiatoday*,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18001028178
- [5] H. W. Kang, Y. H. Lee & S. H. Park. (2011). An Exploratory Research of Components for Dancing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6), 249-259.
- [6] Naver encyclopedia of knowledge. dance. Academic Excellenc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4514&cid=44415&categoryId=44415>
- [7] Y. Moon. (2008). Factor Analytic investigation of Dance Performance Ability for development of Dance Performance Ability Test (DPAT).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17, 1-17.
- [8] J. E. Kim. (2014).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based on subjectivity of desire-. *Resach of Dance Education*, 25(1), 97-109.
- [9] T. H. Kim & H. J. Joung. (2014). The meaning of imaginative expression in improvisation dance -based on the theory of Collingwood.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2(4), 239-255.
- [10] E. K. Shin. (2014). Power of dance imaginary expression learning as nonverbal communication. *Resach of Dance Education*, 25(2), 1-16.
- [11] C. Y. Chang. (2015). Imagination and expression of dance. *Resach of Dance Education*, 26(4), 45-63.
- [12] B. H. Kim. (1998). The use of the expression and symbolization of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of Korea*, 20, 45-56.
- [13] 波照間永子(Hateruma Eiko). (1999). Special Feature: Body Expression / Connerite - Tradition of Okinawan Dance and Its Operation, *Dance Research Journal of Korea*, 26, 7-30.
- [14] C. J. Choi, H. N. Kim & E. J. Park. (2013). The Effect of Bartenieff Fundamentals revitalization program on contemporary dance university students' dance expressivity.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29, 91-108.
- [15] S. M. Hong. (2008). An Analysis of Participation Effects of Improvised Expression Based on Etude on Character Creation by Dancer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57, 247-267.
- [16] H. S. Lim. (2009).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Studies in Korea:1998~2007. *Cultural policy trade union*, 21, 25-48.
- [17] J. T. Park & K. Y. Park. (2017). Research Trends in Academic Field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765-781.
- [18] J. R. Thomas & J. K. Nelson. (2001). Research methods in physical activity. (4th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19] S. J. Seo. (2012).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in journal of life dance.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28, 83-95.
- [20] M. Son. (2018). The Trends of Researches on Dance Majors' Dance Motivations in the Academic Field of South Korea. *The Journal of DSDH*, 49, 83-106.
- [21]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06). *2005 Culture Policy White Paper*. Sejong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22] J. Y. Bae. (2018). *A Study on new types of dance festival through case analysis of performing arts festival*.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23] E. J. Won. (2010). *Study on social implications of dance festivals*.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24] H. J. Jung. (2012). A Study on Shifts of Dance as Arts Education Policy For the Social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0(2), 81-98.
- [25] M. J. Kim. (2018). *Social Psychological Study on Expressiveness of Dancer*.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 [26] H. Y. Kim. (2009).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1983-2007*.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7] H. S. Shin & C. S. Oh. (2014).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Teacher In-service Education : Focus on Research Areas, Themes, and Method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30(3), 431-462.
- [28] M. S. Han & J. Y. Shin. (2014). Theme and Trend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Dance. *The journal of korean dance*, 32(1), 189-219.
- [29] H. J. Kim. (2015). An Analysis on Domestic Research Trends of Dance Education: Focusing on Major Journals.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32(1), 181-190.
- [30] H. B. Cho. (1998). An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7(2), 414-422.
- [31] S. H. SHIN & H. Jung (2009). Current rpes of quantitative data analysis in the studies of physical

-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Physical Education Research*, 5(2), 33-42.
- [32] K. Y. Kim. (2008). The Response of Fatigue Factors in Blood and Cardiovascular Function based on Korean Dance Training of Professional Dancers in 12 Weeks. *The journal of korean dance*, 26(2), 1-17.
- [33] J. G. Park. (2004). Presen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dance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1, 45-66.
- [34] I. J. Hwang. (2015). The study on Dance Reasearch Metodologyto Philosophical Inquiry. *Korean Dance and Science Technology*, 31, 165-183.
- [35] H. J. Park. (2009). *The Structure of Dance Emotional Expressiveness Constructs and the Tes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6] Y. J. Hong & H. W. Kang. (2016). The Effect of Empathy on Dancing Expressiveness in Professional Dancer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ance Flow.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33(4), 47-61.

박 근 태(Park, Geun Tae)

[정회원]



-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2001년 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 (무용학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무용학박사)

- 관심분야 : 무용표현력, 안무법
- E-Mail : lalala0817@gmail.com